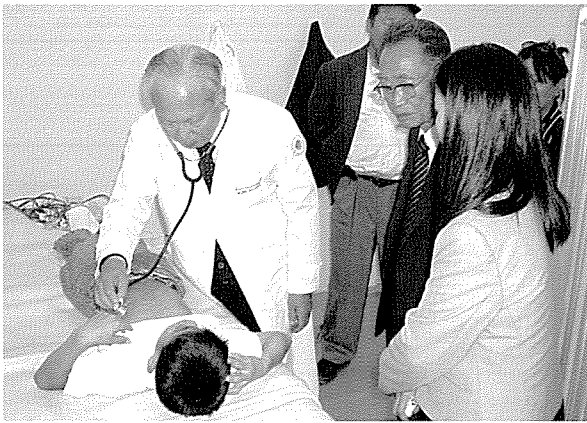


# 한·몽골 건강증진 시범사업, 그물을 열다(2)



홍광선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관리국장

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이국에서 한국인을 만난다는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인데 방송된 테이프를 녹화해 한국으로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각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상세히 보도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9월 9일(목), 환영식을 한다. 사실은 9월5일에 우리 일행이 학교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Ulaanbaatar TV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학생들도 동원하여 대대적인 환영준비를 했었는데 9월7일야야 학생검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날짜와 시간을 다시 잡았다는 교장선생님의 귀뜸이다. 밖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3~400명 학생이 좌우로 도열하여 있고 어린 화동들이 나란히 서 있다가 우리 일행 한사람 한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안겨 준다. “날씨로 보아 장미꽃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찌잉”해 온다. “정말 이 곳에 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다. 대학에 바쁜 일이 있어서 10일날 먼저 귀국하기로 한 부회장님 편에 혈액과 Serum을 협회로 보내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해야겠는데 몽골 사람들의 혈액이 공식적으로는 외국에 반출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마음 졸이는 가운데 보건부장관과 수상 제보좌관을 중심으로 관계자 회의가 소집되고 수 시간 협의 끝에 반출 결정이 내려졌다. 그 결과에 따라 몽골 보건부를 대신하여 혈액 등 가검물을 반출해도 좋다는 Dulamsuren 위원장의 Sign을 받아낼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있는 후 교육부, Ulaanbaatar 교육위원회, 그리고 제 15학교 공동명의로 된 감사장과 메달이 회장님께 수여되었다. 교장선생님과 사회자의 제창에 의해 수 차례 박수와 환호가 반복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 계속될 것 같았다. 평양에서 열린 제 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여했던 임 모 양도 “환호와 박수 소리에 정신이 혼미했으리라” 생각해 본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24세의 Khongger라는 여인이다. 일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는 승합차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몽골말로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으로 솔렝거스라고 하는데 때로는 소똥거스라고도 한다. 무지개가 한 순간에 소똥으로 바뀌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모두들 한 바탕 웃었다.

검사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Ulaanbaatar TV 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찾아왔다. 교장선생님께서 방송국에 재 취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사 진행과정을 촬영하고 회장님과도 40분이 넘도록 인터뷰를 하고 돌아갔다. 그 후에 우리 일행의 소식을 전해 듣고 윤복룡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이 분은 Ulaanbaatar 방송 한국 지국장으로 재임하다가 본사에 와서 정규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

9월 10일(금), 보건부의 Sign은 받았지만 그래도 혈액반출 문제가 불안했던 우리 팀은 황 과장 편에 통역을 붙여서 새벽 5시에 부회장님의 출국편을 배웅하도록 하였는데 다행히 Handcarry한 혈액은 무사히 세관을 통과하였다. 아침 식사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회장님도 걱정을 더시는 것 같다. 몽골에는 토요일 휴무제가 정착 되어있다.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일정을 짜놓았던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토요일에 하기로 되어있던 교사와 교사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조금씩 앞

당겨 처리해야 했다. 때문에 16:00시쯤 예정보다 건진 업무를 일찍 끝낼 수 있었다. 심전도기, 청진기, 냉장고, 비만도 측정기, 기생충 약품, 사용하고 남은 Urine검사 Stick 등 소모품을 학교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밟았다. 학교에 보관되는 물품들은 2005년도 이후 계속해서 사업팀이 몽골을 방문할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실무팀원들이 가검물 포장 등 건진 마무리를 하는 사이에 필자와 황 과장은 주 몽골 KOICA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김장주 소장님과 박형식 부소장님과 차를 마시면서 한몽골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김 소장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약 1,000여명 몽골에 살고 있고 안정된 자리를 잡은 사람도 많다고 한다. 처음 몽골에 들어올 때의 환영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단다. 열심히 일을 해서 교포들이 부는 축적하지만 번 돈을 현지인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몽골 사업 같은 NGO 단체들의 활동이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흐뭇해하였다.

**9월 11일(토)**, 10시쯤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안내를 받아 찾아가는 곳은 라마교 사찰, 넓은 광장 좌우로는 스님들의 숙소와 작은 기념품 매점들이 늘어서 있고 정면에는 미륵(?)을 모신, 우리로 말하면 대웅전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 좌우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탑들이 있다. 그러나 절에서 하는 탑돌이와 다른 것은 탑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물 초롱 모양의 쇠붙이를 손바닥으로 회전시키며 소원을 빈다.

전면의 대웅전 같은 건물로 들어섰다. 기껏해야 10평 정도나 될까? 중앙에 황금빛을 입힌 10m는 족히 뒹직한 입상이 서있고 주위에는 험악한 아니 근엄한 화상들이 즐비하다. 죄짓거나 남을 해하지 말라, 못된 짓거리 하면 그냥 확! 향해 속에 머리가 오싹해진다. 5분쯤 머무르다가 나왔는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다가오더니 1인당 1,000 투르크 싹을 내라고 한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무슨 도사님 소리냐고 했더니 입구에서 있는 기둥을 가리킨다. 사인펜으로 뭐라 써 있는데 아는 글은 1,000이라는 글자 뿐. 손바닥만한 종이에 써놓은 몽골 말이 작기도 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다. 모르는 척 몇 발짝 걸어갔더니 이번에는 영수증을 든 스님 한 분이 우리를 불러 세운다. 일반 투

르크를 건네주었다. 외국인에게만 받는 비평등 과세다. 선생님 한달 봉급이 오만 투르크 정도라니까 웬만한 바가지 요금이다.

몽골 전통 음식을 한번쯤 먹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khongger에게 자주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서 국수와 구운 양고기를 시켰다. 국수를 조금 먹고 있으려니까 중국 집 만두 같은 음식이 나온다. 시키지도 않은 만두이지만 맛 보기일 거라는 생각으로 국수와 곁들여 두어 개씩 먹고 다음 메뉴를 기다린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옆 좌석을 바라보았다. 젊은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별나다. 통째로 구운 양 머리를 양손으로 뜯어먹는 모습이 신기하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 후에 부부가 식사하던 자리를 쳐다보니 그야말로 접시에 해골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다. 틀림없는 해골바가지다. 구운 양고기는 한참을 더 기다려도 나올 기미가 없다. Khongger에게 연유를 물으니 우리가 시킨 양고기 구이가 만두였단다. 만두피에 다진 양고기를 넣은 만두였는데 굽는 것과 튀기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통역의 해프닝이었다.

오후에는 재래시장을 둘러보았다. 우리의 재래시장보다 규모가 몇 배 커 보인다. 일상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청바지, 신사복, 두루말이 옷감, 가방, 구두, 담배, 문구류, 감자, 과일 등등 없는 것이 없다. 어깨를 부디 칠 만큼 명동거리처럼 사람이 붐빈다. 낮술에 취해 귀를 물어뜯으며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까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9월 12일(일)**, 모처럼 교외로 나가보기로 했다. 광활한 초원에서 양과 마소의 무리들이 풀을 뜯고 있다. 흠이래야 비옥하기보다는 쓸모 없는 모래땅, 그러니까 농사는 못 짓고 풀이 있는 곳을 따라 목축업이 주류를 이루는 모양이다.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중국으로 향하는 기차가 우리들이 탄 승합차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저만치 뒤편에 처져있다. 뱀이 들뜬을 기어갸듯 몇 집 안 되는 마을과 언덕을 따라 돌고 돌기를 반복한다. 중국 국경을 넘어 북경까지 가는데 밤낮 3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비옥한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면적은 남북을 합친 반도의 7.4배 그렇지만 인구는 259만명, 좁은 땅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우리네의 부러움이 아닐 수 없다.

승합차로 몽골 전통가옥인 겐과 60년대에나 우리가 흔

히 볼 수 있었던 판잣집이 뒤섞여 이루어진 광산 마을을 지나 한참 별판을 달리다 보니 작은 강이 나타난다. 강이 라기보다는 시내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대여용으로 지은 그럴듯한 방갈로도 보이고 강가의 나무들은 벌써 노랗게 단풍이 들었다. 초원에서는 보기 힘든 듯한 바위산 자락에 건설중인 골프장이 보인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소유주는 한국사람이란다. 돈 많은 골퍼들의 돈 쓰는 장소로야 그만이겠지만 쥐꼬리 봉급쟁이의 머리 속이 복잡해진다.

Terej national park에서 말을 대여 받았다. 신바람나게 달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막상 말을 타고 몇 걸음 걸어보니 떨어질 까봐 겁이 덜컥 난다. 그렇지만 유목민의 후예답게 토종 Khongger양은 말 등에 오르더니 양발로 말 배를 힘있게 차고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까지 한다. 평원을 가르는 그 모습이 자연과 어우러져 너무도 멋지게 보인다. 일행이 돌아가며 10여분씩 말을 타고나니 점심시간이다. 공원 내 켈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켈이라고는 하지만 전기도 들어오고 기름용 난로도 준비되어 있다. 음식이 몹시 짜다. 일행 중 거의 모두가 절반도 못 먹고 남겼다. 그렇지만 운전기사는 자기 몫을 다 먹고 또 건네주는 음식까지 말끔하게 먹어 치운다.



에델바이스와 말뚝이 지친인 공원에는 관광객을 위한 대여용 켈이 있다. 안에는 긴 소파 크기의 침대 겸 의자 둘 또는 세 개와 화덕 등 간단하게 침식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품이 고작이다. 유목민들의 생활 양식이 엇보인다. 거북바위, 쫓대바위와 기념품 가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속소로 돌아오는 길가에는 오전에 없었던 양이나 말가족을 수집하는 장사치들이 군데군데에서 흥정을 한다. 토

끼나 족제비 가족 크기의 작은 가족들은 별로 값이 안 나가는지 장사치의 손에 의해 가져없이 버려지고 있다.

**9월 13일(월)**, 적십자사로 국회의원이자 총재인 Odonchimed씨를 방문했다. 국회일정 때문에 피곤했던지 출근이 늦어진다. 각료 배분문제 때문에 여야가 모두 총소집령을 내렸었기 때문이다. Dr. Zambalgarav JADAMBA부총재와 행정책임자를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문을 나섰다. 15학교에 보관했던 혈액과 혈청 그리고 기생충검사용 대변을 챙겼다. Baljinyam 교장선생님 헤어지기가 몹시 아쉬운 모양이다. 공항까지 나오겠다는 것을 겨우 말리고 재회를 약속하며 공항으로 향했다.

일단 일정이 순조롭게 끝나는가보다 생각하며 공항에 도착하여 막 출국 수속을 끝내려는데 묵었던 호텔에서 여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숙박비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숙박비가 적게 나왔던 황 과장의 예감이 적중한 것이다. 잘못 계산된 금액은 1850\$, 자기 봉급의 4~5개월 분은 족히 될테니 그 얼마나 다급했으랴. 차액을 받아든 아가씨는 "Thank you."를 연발하며 두 번 세 번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쯤에서 끝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의 과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부친 가검물이 문제였다. X-ray조사에서 Vacuum-tube가 이상하게 보였던지 통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통관 협조 공문을 보여주고 열심히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다. 공항에서 우리를 배웅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Enkhmaa씨가 다시 돌아와 설명을 해도 그 공문은 보건부 문서이고 자기들은 외교부 산하라면서 통관을 거부한다. 출발 직전까지 설득을 계속했으나 실패하고 끝내는 Enkhmaa씨에게 뒷 일을 부탁하였다. 14시30분 OM 301편으로 Ulaabaatar를 떠나 17시35분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귀국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큰 성과 없이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Z]

추기: 가검물은 몽골 보건부와 몽골항공 관계자의 협조로 다음날 무사히 협회에 도착하였으며, 결과 통계 및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몽골 보건부와 제 15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것이다.